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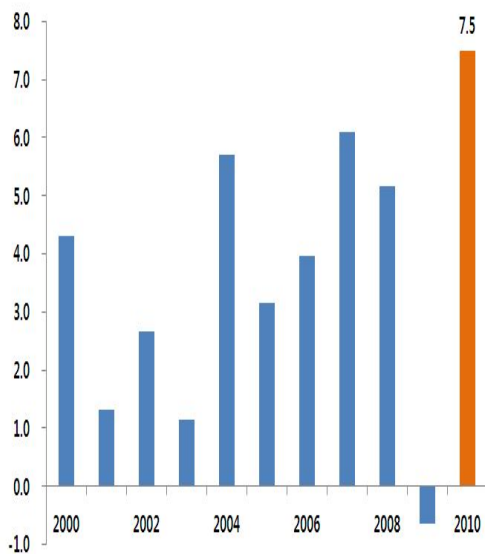
현안과 과제

| 브라질,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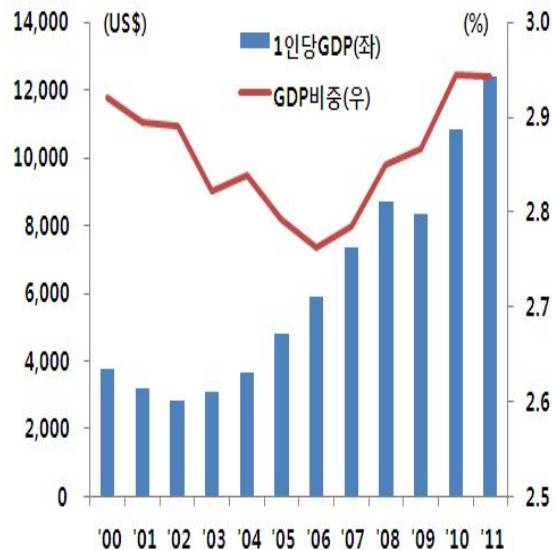
1. 브라질 경제 현황

- 브라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치적인 안정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부상
 - **정치적 안정** : 2003년 룰라 대통령의 집권 이후 강력한 리더십과 높은 정책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이 이뤄졌으며, 경제자유화 및 내수 진작과 소득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반 마련
 - **빠른 경제 회복세** : 2009년 -0.6%의 성장률을 나타냈던 브라질 경제는 2010년 7.5%의 역대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나타냄
 - 브라질 경제는 2010년 1/4분기 9.3%, 2/4분기 9.2%, 3/4분기 6.7%, 4/4분기 5.0%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브릭스 국가들(중국, 러시아, 인도 등)과 함께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주도
 - **세계 경제 비중 증대** : 브라질의 경제는 2000년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여 2010년 GDP는 2조 900억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
 - 브라질 국민의 1인당 GDP는 2000년에 3,751달러였으나 10년만인 2010년에 10,816달러로 약 188%증가
 - 브라질 GDP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구매력기준)은 2000이후 감소하였다가, 2006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2.94%를 차지

< 브라질 GDP 성장률 추이 >



< 브라질 1인당GDP 및 세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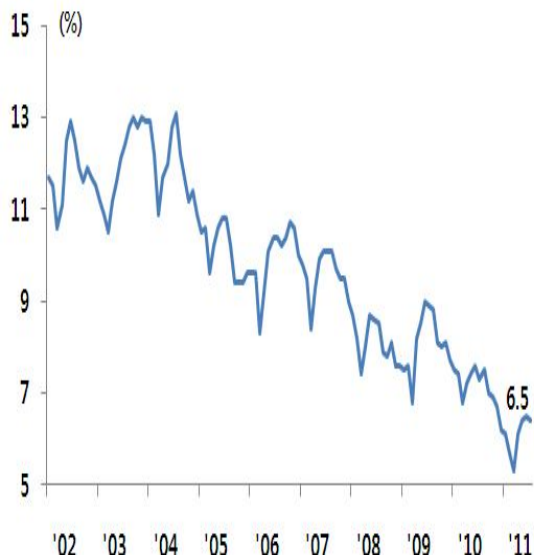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
주 : GDP 세계 비중은 PPP기준임

○ 2011년 브라질 경제는 지속적인 고용안정세와 월드컵 등 대형스포츠 이벤트 유치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고용 안정세** : 고용의 확대와 실질 임금의 상승, 외국인 자금의 유입과 투자 확대 등으로 2011년 하반기 브라질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1/4분기 전년대비 4.2%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2010년 4/4분기 대비 1.3%의 성장을 나타내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실업률은 2000년대 초반 10%대에서 2011년 6.5%수준으로 하락했고, 경제 성장과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고용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
- **대형스포츠 이벤트 유치** : 월드컵(2014년), 올림픽(2016년)의 특수에 따르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정부의 성장 정책으로 브라질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정부는 2014년 월드컵을 위한 공항, 항만, 및 경기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약 530억달러를 투자하고 하계올림픽 개최까지 포함하여 총 1,0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¹⁾
 - 신용위기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도 브라질 경제는 4%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 신용평가기관들은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 브라질 실업률 추이 >



자료 : Reuters.

< 주요기관 브라질 경제 전망 >

기관	GDP(%)	
	2011	2012
IMF	4.5	4.1
OECD	4.3	5.0
JP Morgan	4.5	4.5
UBS	5.4	5.1
Citi	4.8	4.5

자료 : 각 기관 경제전망.

1) 연합뉴스 2010.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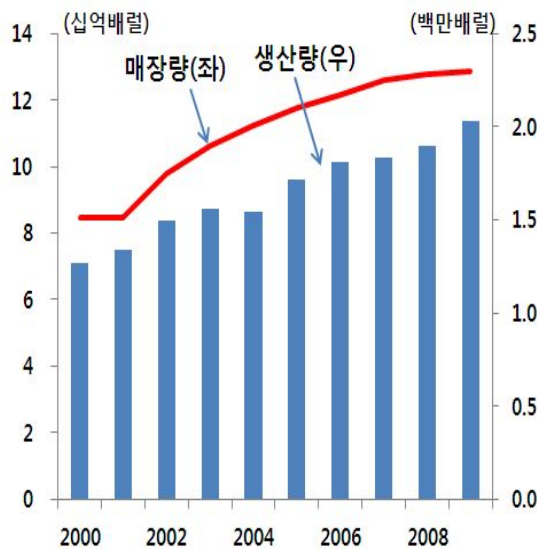
2. 브라질 경제의 잠재력

1) 자원 부국으로서의 브라질

○ 석유 매장량의 증가와 희토류 등의 상업적 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자원 부국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막대함

- 석유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인 투자와 활발한 유전 개발로 브라질의 석유 생산과 매장량은 2000년 이후 급증하였으며, 산업발전에 필요한 석유의 수급이 원활
 - 브라질의 석유생산은 2000년 127만배럴(일평균)에서 2009년 현재 203만 배럴(일평균)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세계 14위, 중남미 중에서는 멕시코, 베네수엘라에 이어 3위의 생산량을 나타냄
 - 특히 브라질의 석유 매장량은 심해 유전개발을 통해 2000년 85억 배럴에서 2009년 현재 129억 배럴로 50%이상 크게 증가
- 철광석 등 주요 광물로부터 희토류에 이르기까지 경쟁력 높은 양한 광종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발전 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 증대 가능
 - 브라질은 세계5대 자원수출국으로서 광물산업의 무역흑자는 131억달러 (2008년 기준)로서 브라질 전체 무역흑자 250억달러 중 무려 52%를 차지
 - 철광석과 보크사이트, 흑연 등의 기초 광물 생산량은 세계적이며 특히, 희토류인 니오븀, 탄탈, 이트륨의 생산량도 풍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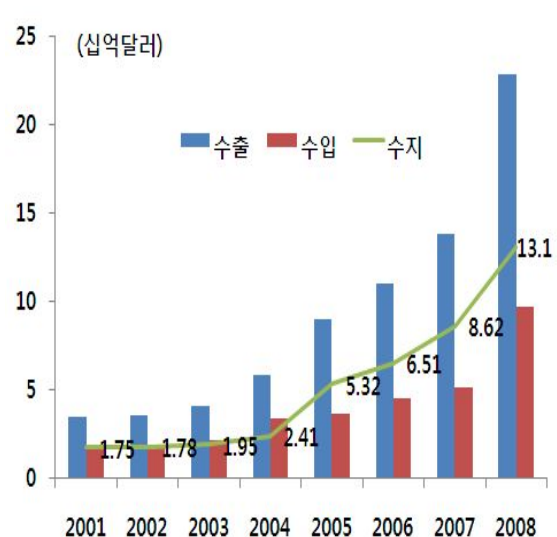
< 브라질 원유생산 및 매장량 추이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

주 : 생산증가율은 일평균기준

< 브라질 광물 무역수지 추이 >



자료 : Institute Brazilian of Minerals.

2) 세계의 식량기지, 브라질

○ 세계적인 식량수출국인 동시에 바이오에탄올 생산국으로서 높은 국가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투자의 매력이 증대

- 광활한 토지를 기반으로 브라질은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국인 동시에 수출국이며, 특히 최근 글로벌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역수지 증대
 - 사탕수수, 커피, 주스 등의 생산은 세계 1위를 자랑하며, 육류와 옥수수, 대두, 담배 등의 농축산물의 생산도 세계 3위권을 차지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세계식량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량부국인 브라질의 무역수지가 높아지고, 국가경쟁력이 크게 제고

< 브라질 농산물 세계 순위 >

주요농산물	세계 순위 (2008년 기준)			
	생산	수출	생산액 (10억\$)	수출액 (10억\$)
사탕수수	1위	1위	13.3	-
커피	1위	1위	22.9	4.2
오렌지주스	1위	1위	32.6	
대두	2위	2위	12.4	11.0
쇠고기	2위	1위	18.7	4.0
담배	2위	1위	1.5	2.7
닭고기	3위	1위	11.9	5.8
옥수수	4위	4위	1.9	1.4
돼지고기	4위	4위	3.1	1.2

자료 : FAO.

< 세계 식량가격지수 추이 >



자료 : FAO.

- 브라질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바이오에탄올 생산국으로서 친환경에너지 확보와 기술 협력 파트너로서의 매력이 높음
 - 환경 규제 강화 및 에너지 안보적 차원에서 바이오에탄올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며, 에탄올 연료 시장 진출을 위한 브라질과 협력 필요성 증대

< 세계 바이오에탄올 생산 현황 >

(단위 : 백만 리터)

국가	2006	2007	2008	2009	2010
미국	20,171	28,929	35,191	40,544	46,024
브라질	17,932	22,446	27,674	25,804	28,960
EU	3,701	3,887	5,021	5,762	6,465
중국	3,509	3,679	3,964	4,109	6,368
인도	1,664	2,082	2,085	1,680	1,704
기타	2,227	2,783	3,248	4,238	3,059
합계	49,204	63,807	77,182	82,136	92,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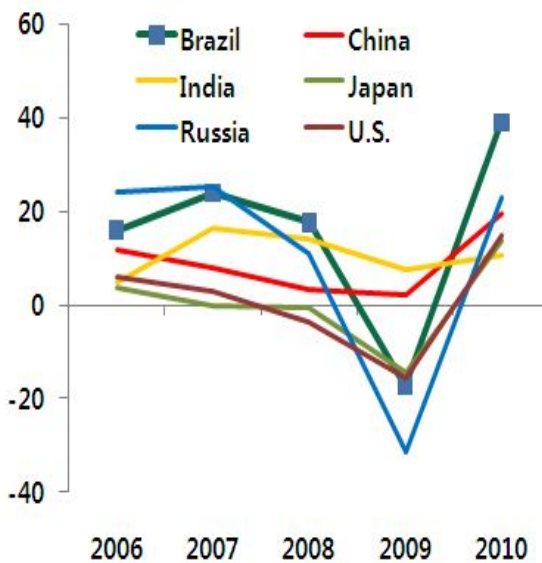
자료 : OECD.

3) 세계적 소비시장,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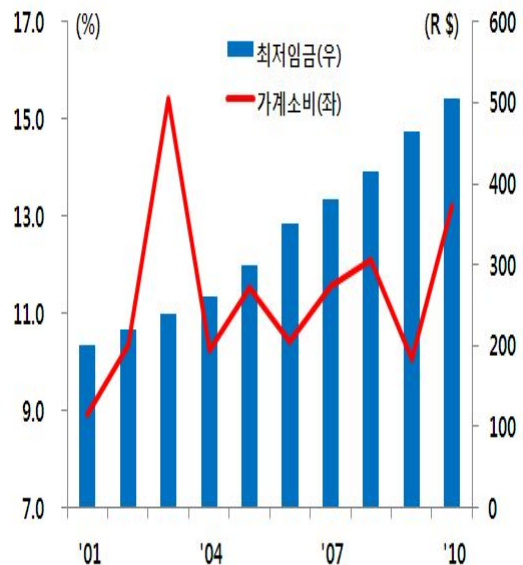
○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 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브라질 시장은 각종 소비제품의 세계적인 소비시장으로 급부상

- 브라질은 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
 - 2006~2010년 브라질의 평균 수입증가율은 15.8%로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다른 브릭스 국가들을 상회
 - 2010년에는 39%의 수입증가를 나타냈으며 수입액 기준으로 브라질은 전 세계 평균의 두 배의 증가율을 기록
- 경제 성장과 함께 가계소비는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최저임금 또한 크게 상승함으로써 가계의 구매력이 크게 상승
 - 가계소비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1%에 달하며 2010년 가계소비는 223만 헤알로서 2009년 대비 13%증가
 - 최저임금은 2001년 200헤알에서 2010년 506헤알로 10년만에 153%인상
- 브라질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브라질 인구 중 약 1,900만 명이 하위 계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함으로써 중산층이 두터워짐
 - 브라질의 중산층은 꾸준히 증가해 2005년 전체 인구의 34%에서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

< 주요국의 수입증가율 추이 >



< 가계소비 증가율 및 최저임금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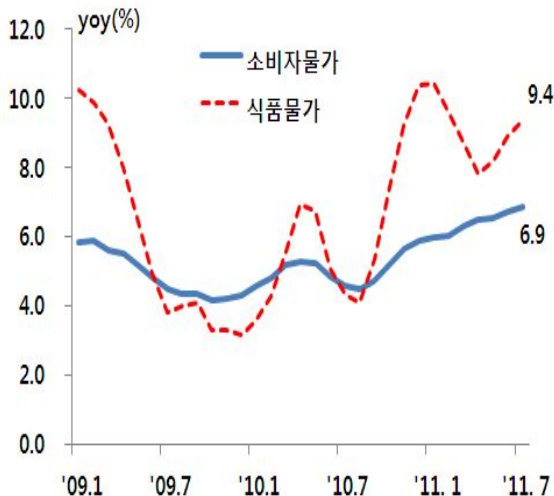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Reuters.

3. 브라질 경제의 불안요인

○ 브라질 경제는 인플레이션 지속과 통화가치의 고평가 등으로 거품 경제의 심화 및 무역수지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가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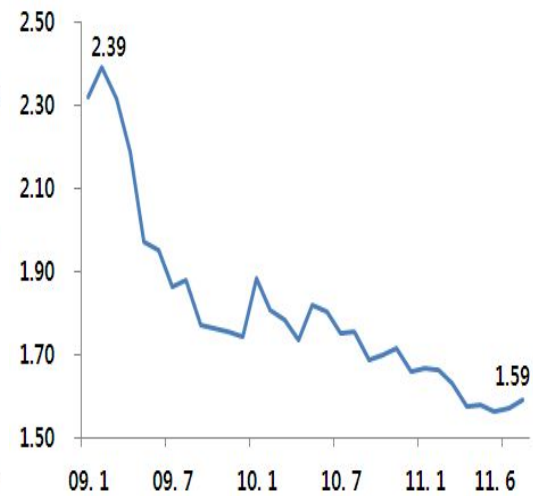
- (인플레이션 지속) 브라질 경제성장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IPCA)은 이미 정부의 인플레이션 상한선 목표인 6.5%를 초과
 - 2010년 물가상승률은 5.9%를 기록하였고, 2011년 들어서도 1월 5.9%, 7월 6.9%를 기록하여 고공행진을 지속
 - 식품물가의 경우에도 2010년 평균 6.1% 상승했으며, 2011년 들어서도 1월 10.4%, 7월 9.4%로 강세 지속
 - 인플레이션 고공 행진이 지속될 경우, 구매력 감소로 소비위축을 가져오고 투자의 위축, 공급 감소로 이어져 급격한 경기 둔화가 우려
- (통화가치 고평가)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해외 자본 유입이 급증하면서 브라질 헤알화의 가치가 지나치게 절상
 - 브라질 중앙은행은 2011년 들어 기준금리(Selic rate)를 1월 11.25%→3월 11.75%→4월 12.0%→6월 12.25%로 총 4차례 걸쳐 1.5%p 인상
 - 환율은 2004년 6월 달러당 3.13헤알에서 2011년 8월 1.59헤알로 50%이상 하락했고, 2009년~2010년 사이 370억달러의 외국 자본의 순유입과 310억달러의 채권 투자가 폭증
 - 브라질 헤알화의 평가 절상이 지속될 경우, 수출 경쟁력 악화로 인한 무역수지의 악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산 및 실물 경제의 버블 형성으로 인해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

< 브라질 물가상승률 추이 >



자료 : Reuters.

< 브라질 헤알화 환율 달러당 추이 >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4. 시사점과 과제

○ (시사점)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과 높은 투자 매력으로 브라질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경제에도 기회요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거대 소비시장인 동시에 자원의 공급처,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며, 브라질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중남미 시장 개척과 국제 사회에서 위상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브라질은 세계 5위의 국토와 인구,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미국과 유럽 등을 시장을 보완할 수 있는 거대 시장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지님
 - 특히 월드컵과 올림픽이라는 세계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한 브라질은 향후 우리 기업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참여 등의 기회요인을 제공
 - 또한 중남미 경제의 리더인 브라질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MERCOSUR와의 FTA 체결을 앞당김으로써 중남미 시장 개척의 교두보로서의 매력이 높음
 - 브라질은 견조한 경제 성장을 통해 G-20과 BRICs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신흥국을 대변하고 있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사회의 위상과 입지를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과제) 브라질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해야 하며, 자원개발과 및 농축산물 등 원자재 공급시장의 개척을 위한 연구와 투자 필요

- 공항과 항만 및 경기장 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도록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또한 지하자원과 식량 자원의 안정적 공급처로서 브라질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바이오에탄올 등 친환경에너지 기술의 협력 채널을 강화
 - 또한 인구 2억명의 소비시장인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역전문가 양성 및 지역 네트워크의 강화 노력이 필요함
- 다만, 미국 경제의 침체 지속과 인플레이션, 통화가치 고평가 등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등의 불안요인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임
 - 특히 대규모 투기 자본의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교란이 우려되므로 투자시 주의가 필요하며, 헤알화 급락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자료>

< 브라질 주요 광물의 생산량 >

광종	단위	브라질	세계	A/B(%)	세계 순위
니오븀(Niobium)	톤	58,000	63,000	92.1	1
탄탈(Tantalum)	톤	180	670	26.9	1
철광석(Iron Ore)	백만톤	370	2,400	15.4	3
흑연(Graphite)	천톤	76	1,100	6.9	3
이트륨(Yttrium)	톤	15	8,900	0.17	3
석면(Asbestos)	톤	270,000	1,970,000	13.7	3
보크사이트(Bauxite)	천톤	32,100	211,000	15.2	4
주석(Tin)	톤	12,000	261,000	4.6	5
연삭재(Abrasives)	톤	50,000	1,190,000	4.2	5
알루미늄(Aluminum)	천톤	1,550	41,400	3.7	6
망간(Manganese)	천톤	830	13,000	6.4	6
활석(Talc)	천톤	410	7,450	5.5	7
니켈(Nickel)	톤	66,200	1,550,000	4.3	10
코발트	톤	1,500	88,000	1.7	10

자료 : Mineral Commodity Summarise 2011, U.S. Geological Survey.

< 브라질 정부의 성장촉진프로그램(PAC) 2기 내용 및 기대 효과 >

	주요내용
목표	- 월드컵 준비 등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서민 경제 강화 ※ 1기 PAC 목표 :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
주요 프로그램	- 에너지 생산 확대 : 심해 유전 개발 및 발전소 건설을 통한 에너지난 해결 - 서민주택 보급 확대 :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주택 건설 및 보급 - 교통난 해소 : 리우~상파울루 간 고속철도를 포함한 인프라 확대 - 도시문제 해결 : 대중교통의 확대, 하수도 위생처리시설, 쓰레기수거 시스템 정비 - 상수도 확충 및 전기 보급 확대 : 도시지역 주민을 위한 상수도 및 전기 보급 확대 - 주민복지 향상 : 공공의료시설, 유치원, 경찰 초소 설치 확대 등
기대효과	- 2011년~2014년 기간 중 연평균 1.0%~1.5%p 추가 경제성장효과

자료 : KOTRA.